

한-일, T-11형 Pallet 공동사용 협의

산자부, 한·일 물류협의회 개최 ... 물류기기 국제표준화도 추진키로

한·일 물류체계 소프트웨어, 물류 공동화, 물류기기의 국제표준화 등 물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한·일 물류협의회가 2002년 3월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.

한국은 한국물류협회의 '로지스틱 단체의 사명과 활동 및 민간의 물류효율화 사례', 일본은 일본로지스틱시스템협회가 '로지스틱 단체의 사명과 활동 및 민간의 물류효율화 사례'에 관해, 한·일 공동으로 '아시아에 있어서 파렛트 표준화' 등 물류체계에 대한 민간단체의 사례발표가 있었다.

특히, 한·일 물류협의회에서는 T-11형 파렛트 등 양국간 표준물류기기 공동사용 확대방안에 상호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본 진출을 물류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.

산업자원부는 양국간 최초로 열린 한·일 물류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양국간 고위급 물류관계관 회의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한·중·일 3국이 주축이 되는 아시아 물류협의회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
또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업계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국제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.

한편, 한·일 물류협의회에 일본측은 경제산업성의 시무라 카츠야 물류담당기획관과 일본 로지스틱스협회 전무이사 등 물류협회 인사 6명이 참석했으며, 한국측은 산자부 유통 서비스정보과 정진대 과장, 기술표준원 물류담당연구관 그리고 한국물류협회 서병운 회장, 한국 파렛트협회 김태규 회장 등 13명이 참석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3/ 08 >